

# “소음·일조권 침해...수행 불가능”

## 관음종 강력 투쟁전개 움직임 주민들도 “공사철회” 한목소리

<면에서 계속>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150여년 된 전통사찰인 약사원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관음종의 상징적 존재”라며 “사찰 바로 앞에 소음이 심한 철타가 들어선다는 것은 사찰 수행 환경을 침해하는 행패행위”라고 분노했다.

약사원 주지 대광 스님도 “특히 약사원 주변 임반은 원무암이 많고 지질구조가 약해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낙석이 심하다”며 “사찰 중추 때도 중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 곳에 거대한 철타가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서실장 도라 스님도 “철타가 들어서면 약사원은 소음뿐만 아니라 일조권도 상당히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철타 건설 저지 관철을

위해 종도는 물론 포항 불자들의 협력을 얻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백진호 과장은 “3월중으로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충분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겠다”며 “하지만 철타건설은 불가피하며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약사원 뒤쪽의 철타 건설도 열차가 안 때 지금상태로는 철타 노선 변경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자명2리 주민 200여명은 지난 1월 포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나라당 포항 지구당 등을 방문해 “철타 건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즉각 공사 철회를 촉구했다.



사찰 일주에서 15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철타공사 예정 구간을 가리키는 대광 스님.

황면수(65) 대척위원장은 “지난해 말 환경평가 통과 이전에 보통 주민 공청회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10여 대에 살며 고향을 지키는 토박이들인데 현재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이어 철타까지

건설된다면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황보주 한나라당 포항 지구당 사무국장도 “최근 자명2리에 도로가 들어서 주거 환경의 침해는 물론 약사원의 수행환경 침해까지 우려되는 시점에 철타까지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듣고 불교계와 주민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안다”며 “포항시측

과 적극 협조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남부선 포항 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설계를 거쳐 빠르면 내년말부터 착공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비는 약 2조 5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포항=김주일 기자

## “자비정신 실천합니다”

### 청주청원 조계종, 연합봉사단 발족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는 3월 8일 청주 대한불교 수도원에서 조계종 산하 ‘청주청원 조계종연합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중앙공원 무료 급식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소의 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것을 밝혔다.

‘청주청원 조계종연합봉사단’은 율화사, 관음사, 총북포교사단, 청주봉우회 등에서 활동하던 봉사단 중 190여명이 가입, 발대식 후 기존에 활동하던 각 사찰 봉사단과 연합 봉사단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연합봉사단 총재 설국 스님(수도원 주지)은 “한국 불교는 1600년간 부처님의 가르침 중 지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연합 봉사단이 봉사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봉사단장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은 “봉사단 발족 주체가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이니 만큼 꾸준히 봉사단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봉사단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놓치지 않고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원 장경석(44, 관음사 봉사단)씨는 “관음사 봉사단과 연합봉사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며 “두 봉사단 중 어느 한 곳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 청주불교연합회장 각의 스님,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흥재형 국회의원 등 사대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순효선 기자

## ‘호국팔만대장경법회’ 봉행

### 합천 해인사서 4월 12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4월 12일 오전 10시 ‘2008 호국팔만대장경법회’를 봉행한다.

올해로 48번째를 맞는 법회는 호국팔만대장경정대법사로 진행되다 지난해 호국팔만대장경법회로 이름을 바꿔 개최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 힘히 밝혀져 온누리에 펼쳐지이다’를 행사주제로 내건 이번 법회는 해인사 본말사 스님과 전국의 불자들이 참석해 수행원력과 신앙심을 고취하고 호국 호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법회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축원

하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발표된다. 또한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법문에 이어 참가자 전원 ‘국운융창 남북통일 법륜상전’을 기원하는 해인도(海印圖) 행진을 펼치게 된다. 해인도는 화엄사상을 풀이한 도상으로, 해인사 법당 마당에 설치된 해인도를 따라 참가자들이 대장경 경관을 머리에 이고 행진하게 된다.

법회 전날인 11일에는 특별 철야기도가, 13일에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행전 및 비로자나부처님 광명철야기도가 봉행된다. 참가비 3만 원. (055)934-3105

여수령 기자

### 능인고 자율형 사립학교로

조계종 종립학교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종광 스님은 3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능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광

스님은 “‘불타정신을 생활화하여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전환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광 스님은 “본사 주지스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형 사립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속초시 공무원불자회 만든다

### 3월 21일 창립법회 봉행

속초시공무원불자회(회장 박영태)가 3월 21일 창립한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 신흥사(회주 무산)는 지난해 100여 명의 속초시 공무원 불자를 모집해 불자회 창립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월 20일 신흥사 설립전에서 1차 임원회의를 개최한 공무원불자회는 초대회장으로 박영태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장을 내정했다. 창립법회는 21일 오후 7시 속초시문화회관에서 ‘속초시공무원불자회’에서

봉행한다.

속초시공무원불자회는 앞으로 연 2회 시정 상황실에서 조찬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제3교구 통합법회 참석, 수계법회 및 성지순례,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해종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회주 무산 스님 등 신흥사 본말사 스님들과 속초시공무원, 신흥사 복지원 산하 단체 직원 등 7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033)636-7044

여수령 기자

### 성무호국사 졸업법회 봉행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주지 동광)는 3월 13일 56기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졸업생도 42명과 청주 조계종 수도원 원장 설국 스님, 조계종 근교교구장 일면 스님, 법주사 부

주지 무상 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 등 사부대중 400명이 참석해 생도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일면 스님은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니 쉬우니 국가를 지킨다는 큰 사명감을 갖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다.

순효선 기자

## “두꺼비 생명 지켜주세요”

### 대구 경북불교대학, 망월지 수질보호 팔 걷어

“두꺼비는 우리와 함께 살아 가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둔판)이 사찰인근에 위치한 망월지에 서식하는 두꺼비 보호에 나섰다. 두꺼비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포획금지야생동물로 보호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 옥수동 망월지는 최근 국내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 확인돼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다.

서식지인 인근 옥수골에서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수십만 마리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대규모 두꺼비 이동이 관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꺼비는 열흘 정도 망월지에 머물며 산란을 한 후 다시

서식지인 옥수골로 돌아간다. 경북불교대학은 이 같은 망월지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3월 10일부터 ‘대구망월지두꺼비보호대책협의회’와 함께 산란지 일대에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망월지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인수관로에 연결되어 있던 인근 식당의 우수관로를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두꺼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망월지에 ‘두꺼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10일에는 경북불교대학 불자들이 환경단체 회원 50여 명이 나서 저수지 주변을 청소하는 등 자연보호에 앞장섰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손법천 대구지사장

#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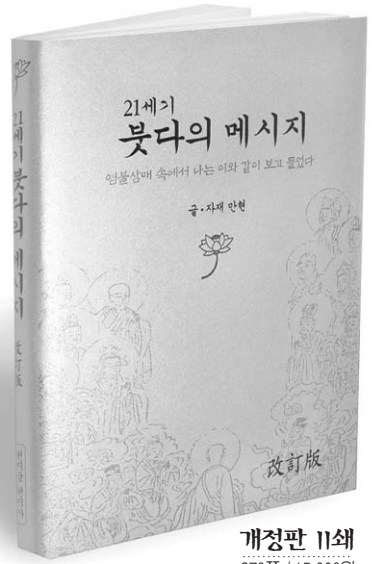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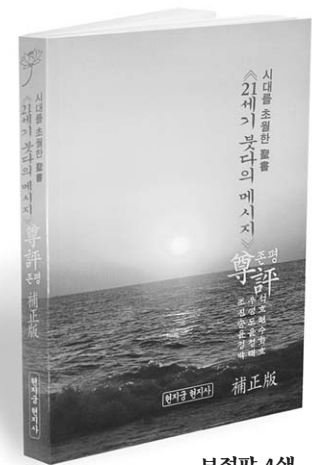
## 존명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傳評”

##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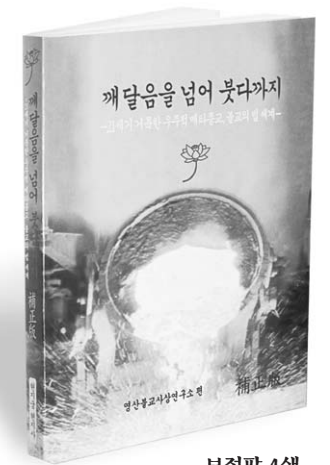
절찬리 판매중  
13 발  
쇄 들  
어 감  
년 만  
에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재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 스승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